

말레이, '알라 하이힐' 논란 ... 판매 중단

말레이시아의 한 신발 회사가 일부 제품 로고가 이슬람 유일신 '알라' 글자를 연상시킨다는 지적에 즉각 사과하고 판매를 중단시켰다.



▲ 말레이시아의 한 신발회사가 '알라' 글자를 연상시키는 제품 로고를 사용하여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오른쪽은 스티레토힐. 사진=bertaharian.sg

말레이시아 신발 회사 베른스(Vem's Holdings)는 8일 성명을 내고 일부 하이힐 제품 밑창에 찍힌 로고는 발목을 나선형으로 감싸는 스티레토힐의 실루엣을 묘사한 것이지만, 디자인 결합으로 인해 로고가 잘못 해석됐을 수 있다고 인정했다. 베른스는 또 즉시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이미 구매한 고객들에게는 환불을 진행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말레이시아 경찰은 이날 베른스 매장에서 해당 신발 1100여켤레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이 나라에서 이슬람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인 이슬람 개발부(JAKIM·자킵)

도 베른스 설립자인 응환 후 회장을 소환 조사했다. 자킵 당국은 신발 로고가 아랍어로 '알라'라는 글자와 비슷하게 보이도록 고의로 제작됐다는 증거가 나온다면 법적 조치를 통해 유사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말레이시아는 국교가 이슬람이고 전체 인구 3400만명 중 무슬림이 약 3분의2를 차지한다. 이들은 유일신이자 최고신인 알라를 신체 가장 밑이자 냄새가 나는 발과 연관시키는 것에 "신성모독"이라고 말한다.

이번 문제는 한 소셜미디어 게시물이 신발 로고와 알라 글자의 유사성을 강조한 사진을 올린 뒤 주목받기 시작했다. 경찰과 자킵 당국은 국민들로부터 고소장을 접수받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거짓말에 속아 신장 멘 사람들



▲ 브로커에 속아 신장 적출 수술을 받은 마을 주민이 수술 자국(원 내)을 보여주고 있다. 사진=dailymail.co.uk

'신장 마을'이라고 불리는 네팔 한 마을의 사연이 알려져 큰 충격을 주고 있다.

2일 영국 스카이뉴스는 "네팔의 호세 마을은 거의 모든 마을 사람들이 신장을 팔아 신장 계곡이라고 불린다"고 보도했다.

마을 주민인 40대 남성 칸차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지 셀 수 없을 정도"라며 "이 마을, 저 마을,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신장을 팔았다"고 밝혔다.

스카이뉴스는 브로커들이 수년 동안 마을을 방문해 장기 적출을 권유해왔다고 전했다. 주민들은 '신장은 떼어내도 다시 자라난다'는 거짓말에 속아 신장을 팔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주민은 착취를 당했다고 주장하거나 수술 도중 사망한 일도 있었다.

호세 마을 주민들은 더 이상 신장을 파는 사람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일부는 여전히 자신의 삶을 보전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네팔의 '신장' 문제는 단순히 장기밀매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최근 네팔에서는 신부전증을 앓는 젊은 남성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경제적인 이유로 걸프 지역, 말레이시아 등의 해외에서 일하고 있다. 과학자들은 극심한 더위와 탈수증에 노출된 결과라고 밝혔다.

잃어버린 반려견, 2000마일 떨어진 곳에서 재회

잃어버렸던 반려견을 8개월이나 지난 뒤에 무려 2000마일 떨어진 곳에서 재회한 사연이 화제다.



▲ 잃어버린 반려견 미슈카를 2천 마일 떨어진 곳에서 극적 재회한 엘리자베스 호우만. 사진=20min.ch

엘리자베스 호우만씨는 지난해 7월 캘리포니아의 한 자동차 정비소에서 반려견 미슈카를 잃어버렸다. 미슈카의 목걸이에는 가족의 전화번호가 적혀있었다.

호우만 씨의 가족은 미슈카를 찾기 위해 수소문을 하고 전단지 등을 붙이는 등의 노력을 했지만,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 자포자기하는 심정이었던 호우만 씨는 최근 미슈카를 잃어버린 후 8개월 만에 한 동물 복지단체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동부 미시간주의 디트로이트에 위치한 하퍼우즈의 경찰이 실종된 개에 대한 신고를 받아 동물 복지 단체에 연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슈카의 목걸이에 있던 견주의 정보가 찾는데 큰 역할을 한 것이다.

호우만 씨는 즉시 미슈카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 극적으로 재회했다. 동물 복지단체는 하퍼우즈 경찰로부터 미슈카를 인계받아 보호하고 있었다. 미슈카를 검진한 수의사 낸시 필스버리는 "미슈카의 영양 상태가 양호하고 몸도 깨끗하다"며 "누군가 그를 잘 돌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미슈카가 어떻게 하퍼우즈까지 오게 됐는지는 오직 미슈카만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발냄새로 미래를 본다

장원호 발 전문 병원

(발 및 발목 치료 족부 전문 병원)

Ryan Chang, DPM

레이저 Class IV Laser

최첨단 체외충격파

분야

- 발 통증, 통풍, 평발, 발목 골절
- 관절염, 발가락 변형, 족저근막염
- 발 교정용 & 맞춤형 깔창 처방
- 당뇨관련 발치료, 무지외반증
- 스포츠 관련 발 & 발목 부상, 인대 손상
- 무좀, 내성발톱, 사마귀
- 발목 또는 발가락 기형 수술
- 소아족부질환, 소아 안짱다리 교정

— 발 관련 스포츠 부상 관리 및 수술 전문 —

특별 진료

최첨단(체외충격파, 레이저)기기로 통증, 사마귀, 발톱무좀 치료

각종 보험 취급

PPO: United Health Care, Anthem, Cigna, Aetna, Blue Cross Blue Shield
HMO: Seoul Medical Group, Center IPA, Prospect (Daehan) Medical Group

Ryan Chang, DPM

T.949.484.4405

62 Corporate Park Suite #235, Irvine, CA 92606

월요일 - 금요일 9:00am - 5:00pm